

대체에너지 수요 신장세 지속된다!

태양광 관련주 투자관심 폭증 ... KCC · LG · 삼성 폴리실리콘 진출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21일 오전 10시4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오성엘에스티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유니스(8.08%), 이진창호(8.41%), 신성이엔지(6.65%), 동진썬미켐(4.06%), 티씨케이(4.38%), 에스에너지(4.01%) 등이 급등하고 있다.

에버리소스(8.73%), 유성티에스아이(6.00%), 소프트랜드(7.33%) 등 다른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반면, 5월20일 충북 음성군 소이공업단지에서 태양전지 공장을 준공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본격화한 현대중공업은 3.26% 내리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의 서동필 연구원은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테마에 편승하기 보다는 실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양제철화학(-4.48%), 소디프신소재(-1.72%), 태웅(-0.61%), 현진소재(-2.97%) 등 중·대형주를 추천했다.

CJ투자증권 이희철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유가 기준으로도 역사적 고점수준이지만 아직 글로벌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에너지 수요는 당분간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태양전지 원료인 폴리실리콘(Polycrystal Silicone) 사업에는 기존 동양제철화학을 비롯해 KCC, LG화학, 삼성정밀화학 등이 추가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21>